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대표 : 정장호)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멀티미디어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각종 정보를 호스트 컴퓨터와 여러대의 PC를 연결해 운용되는 LAN(근거리통신망)에 설치되며 인사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동사는 이 시스템이 PC상에서 생생한 화상정보는 물론 각종 그래프 음성 등 다양한 출력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기업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여러 내부환경에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산 최초로

**세계 10대 셀룰라폰에
선정**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이 자체브랜드로 미국에 수출해온 휴대전화기(모델 GSP-100)가 이동통신전문지인 '모바일 프로덕츠 뉴스(Mobile Products News)'지에서 국산휴대전화기 최초로 '92년도 세계 10대 셀룰라폰('92 TOP-10 Cellular Phone)에 선정됐다.

모바일 프로덕츠 뉴스지는 '92년도에 미국내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기 중에서 기술력과 상품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금성통신의 GSP-100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미국 3개국 업체들의 제품을 세계 10대 셀룰라폰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국내 금성통신제품이 세계 10대 셀룰라폰에 일본의 파나소닉, 후지쯔, 소니, 미국의 에릭슨-지이, 독일의 보쉬와 함께 선정됨으로써 국산 휴대전화기의 기술력과 제품력이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의 특징은 두께 17mm까지 더욱 얇아지고 가벼운 것, 금년에 개시되는 디지털이동 통신서비스에서도 아날로그/디지털 방식으로 사용가능한 듀얼모드(Dual Mode)타입, 더욱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넓혀진 LCD표시판, 출력이 1.2W까지 높아진 것, 핸즈프리기능을 이용하여 카오디오셋과 결합된 것, 일반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원문제를 해결한 것, 세련된 디자인 등으로 휴대전화기의 기술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성통신 휴대전화기 GSP-100은 지난해 5월 출시 이래로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로 인기리에 3만여대가 판매되어 국내 조선, 동아, 서울경제, 중앙경제신문 등의 10개 언론매체로부터 '92년도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CATV기기 사업
강화**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CATV(종합유선방송)기기 및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대우전자는 올상반기중 유선방송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등으로 2~3년내 CATV관련기기 및 프로그램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지난해 구성된 방송시스템 사업부 인력을 최근 기존의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으며 방송시스템 설계 및 시공관련 기술 축적을 위해 전직 방송원로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우전자는 이와함께 시스템설계 및 시공외에 쌍방향 컨버터를 비롯 방송용 카메라 및 VCR 등 관련기자재 개발도 진행중이며 기존의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사업을 확대, 프로그램 공급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8년 시스템 사업부내 CATV팀을 설립, 이분야 사업을 벌여 온 대우전자는 작년말 1백억원 규모의 지하철 7, 8호선 영상설비 및 방송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성공하고 철도청 AV(오디오비디오)음악방송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굳혀왔다.

**486PC용 단일칩
시스템컨트롤러 개발**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이 세계 최초로 486 PC용 단일칩 시스템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대우통신이 미국 현지 반도체설계 법인인 아피안(Appian)사와 공동으로 1년여에 걸쳐 개발하여 모델명을 P195로 이름붙인 이 제품은 기존의 PC용 칩셋이 2~3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메모리, 캐쉬, 키보드 컨트롤러 등 PC제어용 모든 필수 논리 기능을 한개의 칩으로 집적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P195 단일칩 시스템컨트롤러는 386DX, 486SX, 486DX, CYRIX 486 DLC 등 모든 이기종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지원하며, 최대 동작주파수는 486DX 또는 486SX의 경우 50MHz이고 386DX는 40MHz이다. 특히 P195는 고집적성과 더불어 모듈러 형태의 고속 로컬버스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경제적인 가격으로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P195에 내장된 버스 체계는 기존 방식이 데이터 처리시 CPU가 직접 ISA버스를 제어하는 것과는 달리, 로컬 버스를 채택하여 ISA버스와 CPU버스에 관련된 모든 채널을 분리, 제어함으로써 ISA버스에 관련된 자료가 처리되는 동안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업·계·소·식

이밖에도 P915는 VESA(Video Electronic Standard Association) 로컬버스, Bown Loadable 키보드 컨트롤러(8042), 시스템 입출력을 제어하는 BIOS EPROM 및 플래쉬 PROM과 EEPROM용 인터페이스, 코프로세서 지원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산

삼성의료기기 (주)

삼성의료기기(대표 이채욱)가 초음파영상진단기와 X선 촬영기를 올해 상반기 중 생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계열사 3개사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합작으로 지난 84년에 설립한 삼성의료기기는 그간 수입해오던 초음파영상진단기·X선촬영기 등을 이달초에 있었던 을 사업계획심의에서 국내 생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기기는 의료부문 연구원 30명을 흡수, 자사 연구인력을 15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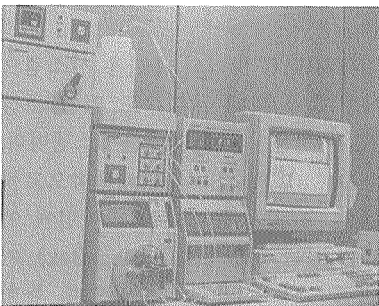
또한 합작파트너인 GE사의 자사에 대한 자본참여 비율을 높여 기술이전을 촉진키위해 72억원인 자본금의 구성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5대 5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첨단과학 분석기

첨단과학 분석기

국산화

삼성전관 (주)



삼성전관(대표 박경팔)이 첨단과학분석기를 국산화, 이달말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동사의 종합연구소는 2년동안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비디오현미경과 공장폐수, 환경오염물질분석에 사용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등 3종의 과학분석기기를 개발, 연간 2백억 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기는 고도의 정밀전자 화학 광학기술을 응용한 종합첨단 기술 제품으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데다가 가격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당 4천만원정도 고가의 과학기기제품 구입과 AS불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이나 연구소 학교 기업 등의 시험분석 연구원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고해상도 모니터

생산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는 미 휴렛팩커드(HP)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워크스테이션용 고해상도 모니터를 국내 생산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HP사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할 예정인 모니터는 1,640×1,280 해상도의 21인치와 1,280×1,024의 17인치 제품으로 21인치의 경우 고해상도의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워크스테이션용 제품이다.

업·계·소·식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PA-RISC칩을 탑재한 워크스테이션을 HP사와 공동개발, 현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급중인데 이 어 그래픽용 고해상도의 모니터도 함께 공급하게 됐다.

동사는 지난해 21인치 모니터를 개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 채용할 정도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주파수 대역폭을 30~90MHz로 확대한 범용 워크스테이션용 모니터를 개발중에 있다.

전문가용 전자출판 시스템 신모델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다양한 서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편집기능을 갖춘 전문가용 전자출판시스템(모델명: MY-DTP)의 개발에 성공, 전자출판 전문회사인 (주)모던테크를 통해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기존의 전자출판 시스템에 비해 국문의 경우 서체의 종류를 15종으로 대폭 늘릴 수 있어 다양한 서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체화한 통합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자출판(DIP: Desktop Publishing)시스템은 용어가 의미하듯 책상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문서의 입력, 편집, 출력 작업을 통해 문장작성 및 도형 제작은 물론 사진까지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하는데, 입력/편집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로 구성된다.

삼성전자의 전자출판시스템은 WYSIWYG 방식의 출판용 시스템으로 30~300%까지 간단하게 문서를 축소/확대시킬 수도 있어 문장 및 도형작성, 화상입력 등이 자유로운 전문가용 전자출판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풀다운(Pull-Down) 메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마우스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가지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문답상자(Dialog Box)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크롤 바(Scroll-Bar)를 이용해 작업중인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방 전산망 본격 추진 포스데이타 (주)

포스데이타(대표 성기증)가 최근 인원과 조직을 대폭 보강, 국방 전산망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방 전산망 프로젝트의 하나인 모의전투훈련프로그램(BCTP)을 완성, 26일 대전에서 전투모의센터(BSC)가동식을 가질

업·계·소·식

계획이다.

이번에 육군에 공급된 이 프로그램은 위계임을 비롯한 가상전투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레이더망을 종합관리하는 항공 관제시스템과 전략 통제시스템(C₃I)프로젝트도 추진중에 있다.

고부가 부품 생산 확대 한국마벨 (주)

한국마벨(대표 김순중)이 올들어 전자식튜너 카CDP(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용 데크 등 고부가부품 생산과 금형부문사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동사는 지난해부터 폴리바리콘 매뉴얼튜너 IFT(중간주파수변성기) 등 기존전자부품생산을 태국 및 중국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카CDP용 데크와 키보드 등 컴퓨터주변기기를 중점 생산하기로 했다.

또 한국마벨이 담당해온 부품금형사업을 집중 육성키위해 지난 연말 계열사인 태풍전자에 이들 사업을 이관하면서 마벨정밀로 상호를 변경, 설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티켓 자판기 첫 국산화 합동정밀 (주)

자동판매기 전문업체인 합동정밀(대표 박태원)이 국내최초로 티켓자판기를 개발, 곧 시판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1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최근 식권 승차권 입장권 등 각종 티켓의 자판기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동정밀이 개발한 티켓자판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된 티켓의 자판기와 종이로 된 티켓의 자판기 등 두가지인데 이중 플라스틱 티켓자판기는 이달중 출시된다.

이번에 개발한 플라스틱 티켓자판기는 학교 공공기관 공장 등의 대형식당뿐 아니라 목욕탕 분식센터 위락시설 등 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용도별로 제작, 설치가능하다.

또한 티켓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하며 20여가지의 상품을 색깔별로 구분 판독이 용이해 정확한 매상집계는 물론 인쇄비 인건비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이로 된 티켓자판기인 우표자판기를 작년 9월부터 시판한데 이어 최근엔 승차권 관람권 인지증지 자판기로 개발, 상반기 중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그룹
임원인사

〈회장〉	대 우 통 신(주) 이석희	대 우 전 자(주) 남 홍
〈사장〉	대 우 통 신(주) 임길용	대 우 전 자(주) 김중환
오 리 온 전 기(주)	대 우 전 자(주) 이민용	대 우 전 자(주) 이만용
〈부사장〉	대 우 통 신(주) 김진찬	대 우 전 자 부 품(주) 서두칠
대 우 통 신(주)	대 우 전 자 부 품(주) 전형구	대 우 통 신(주) 박상철
〈전무〉	대 우 통 신(주) 김천명	대 우 통 신(주) 김천명
대 우 전 자(주) 박원희	대 우 통 신(주) 김천명	대 우 전 자(주) 조중형
대 우 전 자(주) 박일효	대 우 전 자(주) 조중형	대 우 전 자(주) 김문현
대 우 통 신(주) 김우기	대 우 전 자(주) 김문현	대 우 전 자(주) 유한정
오 리 온 전 기(주) 하 철	대 우 전 자(주) 유한정	대 우 전 자(주) 전주범
〈상무〉	대 우 전 자(주) 전주범	대 우 전 자(주) 김충훈
대 우 전 자(주) 간대영	대 우 전 자(주) 김충훈	대 우 전 자(주) 박식의
대 우 전 자(주) 유병권	대 우 전 자(주) 박식의	오 리 온 전 기(주) 문현호
대 우 전 자(주) 최길성	오 리 온 전 기(주) 문현호	오 리 온 전 기(주) 김국봉
대 우 전 자(주) 최길성	오 리 온 전 기(주) 김국봉	

〈바로 잡습니다〉

- 본지 '93년 1월호 56쪽 우측 3단 8행과 9행에 게재된 삼성전기(주) 임원 인사내용중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삼성전기(주) 대우이사 윤용영 → 윤용수,
삼성전기(주) 대우이사 황열원 → 황태원,
- 신년특집 1월호 8쪽 좌측 1단 24행 과학기술기초 → 과학기술기반, 25행 산업기술혁신을 → 산업기술혁신을, 29행 경제발전 → 경제도약, 2단 2행 역사증가율 → 투자증가율, 5행 역사증대 단계를 → 투자확대 조치를, 14행 기술위주 → 기술우위, 정책기초 → 정책기조

